■ PGA 메이저대회 최종라운드 최악의 역전패 사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사상 가장 처절한 역전패 드라마는 올해 브리티시오픈이 열리는 커누스티골프링크스에서 1999년 벌어진 '장(Jean)의 자멸'이 꼽혔다.

ESPN 골프칼럼니스트 스티브 그리빈은 19일 '메이저대회 최종 라운드 자멸' 사례 10개를 선정하면서 1위는 1999년 장 반 드 발드(프랑스)가 최종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트리플보기로 무너지며 우승컵을 헌납한 것이라고 썼다.

❶ 장 반드발드 18번홀 트리플보기 — 1999년 브리티시

❷ 파머, 7타 앞서다 더블보기 남발 — 1966년 US오픈

❸ 노먼 무려 78타…닉 팔도에 무너져 — 1966년 마스터스

다음은 그리빈이 꼽은 10가지 최종 라운드 역전패 사례.

▲1999년 커누스티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에서 발드는 마지막 홀을 남겨놓고 2위에 3타나 앞서고 있었다. 발드는 그러나 개울과 러프를 전전한 끝에 트리플보기로 18번홀을 마쳤다. 맥이 풀린 발드는 폴 로리(스코틀랜드)와 연장전에서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다.

▲1966년 US오픈에서 아놀드 파머는 7타차의 여유있는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지만 더블보기를 남발한 끝에 빌리 캐스퍼에게 동타를 허용, 연장전에 끌려 들어갔다. 18홀 연장전에서도 파머는 2타차 리드를 잡았지만 역전패 당했다.

▲같은 해 마스터스대회에서 그렉 노먼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6타차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4라운드에서 노먼은 78타를 치며 자멸, 67타를 때린 닉 팔도에게 그린 재킷을 넘겨줬다.

▲ 1968년 마스터스대회에서 로베르토 데 빈센소(아르헨티나)가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고도 스코어카드에 '3'이 아닌 '4'를 적어넣었다. 스스로 한 타를 까먹어버린 빈센소는 1타가 뒤져 연장전에 나가지 못하고 봅 골비가 그린재킷을 입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 2006년 US오픈 4라운드 18번홀에서 필 미켈슨은 티샷 실수에 이어 무리한 그린 공략을 시도하다 더블보기를 적어냈다. 보기를 하면 연장전에 나갈 수 있었지만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미켈슨은 결국 1타차로 죠프 오길비에게 우승을 내줬다.

▲1961년 마스터스대회 때 아놀드 파머는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보기만 해도 대회 2연패를 이룰 수 있었지만 네 번만에 그린에 볼을 올린 뒤 보기퍼트마저 실패하면서 개리 플레이어에게 1타차 역전패를 당했다.

▲ 1979년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에드 스니드는 15번홀까지 3타차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스니드는 16번, 17번, 18번홀에서 모조리 보기를 저질러 톰 왓슨에게 덜미를 잡혔다. 18번홀에서 스니드의 파퍼트는 1.8m 거리였으나 볼은 컵 바로 앞에서 멈춰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 왓슨에게 졌다.

▲ 1989년 마스터스에서 스콧 호크는 연장 첫번째 홀에서 76㎝ 짜리 퍼팅을 실패해 두번째 연장전으로 승부를 넘겨야 했다. 두번째 연장전에서 닉 팔도에게 7.6m 버디를 얻어맞은 호크는 이후 평생 동안 '새가슴'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했다.

▲ 1970년 브리티시오픈에서 덕 샌더스는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90㎝ 파퍼트를 넣으면 우승할 수 있었다. 퍼팅 라인에 모래 알갱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치우는 정성까지 들였지만 파퍼트는 빗나갔다. 연장전에 나가야 했던 샌더스는 잭 니클러스에게 무릎을 꿇었다.

▲1956년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켄 벤추리는 8오버파 80타를 쳤다. 4타차 선두로 4라운드에서 나섰던 벤추리는 8타차로 뒤져 있었던 재키 버크에게 1타차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벤추리는 18개홀 동안 15차례나 버디 기회를 맞았지만 여섯 차례 3퍼트로 자멸했다.

최경주(왼쪽)가 19일 스코틀랜드 커누스티골프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골프 연습라운드 도중 후배선수인 이동환(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18일 미국 LA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컨트리와이드 클래식 첫세트에서 이형택이 웨슬리 무디(남아공)에게 리턴샷을 하고있다. 이형택은 무디가 허리 부상 때문에 경기를 포기해 승리를 따냈다.

이형택 행운의 기권승…8강 진출

ATP 컨트리와이드 클래식

이형택(세계랭킹 42위·삼성증권)이 총상금 52만5천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컨트리와이드 클래식에서 단식 3회전에 올랐다.

7번 시드의 이형택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UCLA 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16강전에서 웨슬리 무디(110위.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기권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이형택은 1세트를 6-2로 쉽게 따낸 뒤 2세트에서도 3-0으로 이기던 상황에서 무디가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하면서 준준결승 티켓을 거저 얻었다.

이형택이 이 대회에서 8강에 오르기는 여섯 번 도전 만에 처음이다. 또 올해 투어대회에서는 2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SAP오픈 이후 두 번째다.

북미 하드코트시리즈의 시발점인 이번 대회에서 첫 테이프를 산뜻하게 끊고 상금 1만4천800달러를 확보한 이형택은 8월28일 뉴욕 플러싱 메도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지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기대감을 높였다.

바쇠르 10구간 우승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

프랑스 출신 베테랑 세드릭 바쇠르(37·퀵스텝)가 프랑스도로일주사이클(투르 드 프랑스) 제10구간에서 우승했고 덴마크의 미샤엘 라스무센(33·라보뱅크)은 중간집계 선두로 '옐로 저지'를 사흘 연속 지켰다.

바쇠르는 19일(이하 한국시간) 탈라르에서 마르세유까지 229km 평지구간을 5시간 20분24초에 달려 상디 카자르(프랑세즈 데 죄)를 자전거 타이어 하나 차이로 따돌렸다. 미하엘 알바시니(리퀴가스)는 자전거 한 대 차이로 들어와 3위에 그쳤다.

올해 생애 10번째이자 마지막 투르 드 프랑스를 치르고 있는 바쇠르는 1997년 이후 10년 만에 2번째로 구간 1위에 올랐다.

함평다이너스티CC 등 전국 98개 골프장

한여름 휴장하지 않습니다

4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등 전남도내 골프장들은 대부분 혹서기에 휴장을 하지않는다. 반면 전국 골프장 142곳 가운데 44곳이 이달 말부터 8월초까지 하계 휴장에 들어간다.

19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계 휴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44개 골프장은 여름철 잔디, 각종 시설물 보호를 위해 2일~6일가량 문을 닫는다.

98개 골프장은 여름 휴장없이 계속 문을 열기로 했다.

전남·북지역 골프장 휴장 현황.

▲휴장 없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 골드레이크, 광주, 클럽900, 남광주, 승주, 군산, 무주, 선운레이크밸리, 전주샹그릴라.

파인힐스는 7월 30일과 8월 27일 이틀동안 휴장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20일(금)

▲메이저리그〈필라델피아-샌디에이고〉(10 : 55·Xports)

▲FIFA U20 월드컵 2007 준결승〈칠레-아르헨티나〉(08 : 35·SBS스포츠)

▲제59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춘천고-세광고〉(10 : 00·KBSN Sports), 〈휘문고-경남고〉(13 : 00·KBSN Sports)

▲올림픽제패기념 2007 국제여자핸드볼〈한국-러시아〉(14 : 30·KBS2)

▲프로야구〈한화-삼성〉(17 : 40·KBSN Sports), 〈롯데-SK〉(18 : 30·MBC ESPN)

▲스페셜 매치 2부〈맨체스터 utd-FC 서울〉(19 : 45·KBS2)